

◆ 한자 시험 대비 빈출 문제 (4급)

1. 다음 한자의 독음을 쓰시오.

- (1) 儉素 (2) 處斷 (3) 閉業 (4) 使徒
- (5) 郵便 (6) 防犯 (7) 清掃 (8) 占有
- (9) 郷校 (10) 特許 (11) 到處 (12) 船室
- (13) 納得 (14) 降雪 (15) 強盜 (16) 研修
- (17) 收縮 (18) 勤勞 (19) 徒黨 (20) 鉛筆

2. 다음 한자의訓과 음을 쓰시오.

- (1) 斗 (2) 私 (3) 冬 (4) 閑 (5) 降
- (6) 辯 (7) 脫 (8) 混 (9) 脈 (10) 究
- (11) 季 (12) 篇 (13) 困 (14) 納 (15) 革
- (16) 實 (17) 雜 (18) 牛 (19) 庭 (20) 壑

3. 다음 글 가운데 괄호 친 한자어를 한자로 쓰시오.

- (1) 건강(관리)는 철저히 해야 한다.
- (2) 그는 다른 사람들의 멸시와 (냉대)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꿋꿋이 걸어왔다.
- (3) 현대의 자연 (재해)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결과이다.
- (4) (개발)도상국 모임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다.
- (5) 선생님께서는 (숙환)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다.

4. 다음 訓과 음을 지닌 한자를 쓰시오.

- (1) 마을 촌 (2) 구분할 구
- (3) 클 위 (4) 근심 환
- (5) 살 활

5. 다음 한자의 반대 또는 상대되는 한자를 쓰시오.

- (1) () ↔ 危 (2) () ↔ 夜 (3) () ↔ 低

6. 다음 한자어와 뜻이 비슷한 한자나 한자어를 골라 그 번호를 쓰시오.

- (1) 意 - () : ① 輕 ② 思 ③ 士 ④ 味
- (2) 康 - () : ① 健 ② 重 ③ 弱 ④ 岡
- (3) 寒 - () : ① 暖 ② 水 ③ 冷 ④ 血

7. 다음 빈 칸에 들어갈 한자를 적어 사자성어를 완성하시오.

- (1) 馬()東風 (2) 竹馬故() (3) 蹙蹙()

8. 다음에서 장단은 관계없이 동음이의어를 정자로 쓰시오.

- (1) 非行 - () : 하늘을 날다남
- (2) 入首 - () : 손에 들어옴
- (3) 純利 - () : 도리에 순종함

9. 다음 한자어의 뜻을 고유어(순수 우리말)로 조건에 맞게 빈칸을 채우시오.

- (1) 歸郷 - ()으로 돌아감(조건:2음절)
- (2) 完成 - 완전히 다 () (조건:2음절)
- (3) 校舎 - ()의 건물(조건:2음절)

10. 다음 한자의 약자를 쓰시오.

- (1) 傳 (2) 輕 (3) 國

■ 재미있는 한자성어 ■

정문립설(程門立雪)

(길 정, 문 문, 설 립, 눈 설)
 직역 : 정이선생 문 앞에 서서 눈을 맞고 기다림.
 의역 : 스승에 대한 존경의 마음.

송나라 때 정호(程顥 : 1032-1085), 정이(1033-1107) 형제, 그리고 주희(朱熹 : 1130-1200)는 모두 대유학자로서 그들의 이론을 '정주학(程朱學)'이라 부른다.
 당시 양시(陽時)와 유작(游酢) 두 사람은 스승 정호 선생이 세상을 떠나자 정호의 동생 정이 선생을 스승으로 모시고 학문을 계속하였다.
 날씨는 매우 춥고 곧 큰 눈이 내릴 것만 같은 어느 날, 양시는 모르는 문제가 있어 선생님께 문의하고자 친구 유작과 함께 추운 날씨를 무릅쓰고 스승 댁으로 갔다.
 문을 두드리러다 참문으로 보니 정이 선생이 졸고 있었다. 정이는 두 사람이 찾아온 것을 알면서 일부러 자는 척 하였다.

그러자 양시와 유작은 공손하게 한쪽에 비켜서서 스승이 눈 뜨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반나절을 기다리는 동안 밖에는 계속해서 눈이 내리고 있었다. 얼마 후 정이가 눈을 떴을 때 문 밖에는 이미 눈이 한 자가 넘게 쌓여 있었다.
 정이는 두 사람이 그대로 기다리고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라 물었다. "아니, 그대들은 아직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서 있었던 말인가?"
 두 사람은 추위에 입과 발이 꽁꽁 얼어 감각이 없었지만 스승님께 웃음 띤 얼굴로 공손히 인사를 드렸다.

줄탁동시(啐啄同時)

(지껄일 줄, 쪼을 탁, 같을 동, 때 시)
 직역 : 병아리와 닭의 힘이 동시에 알껍질에 작용해야 비로소 생명체로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
 의역 : 스승이 제자를 지도하여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것에 비유.

닭이 알을 품은 지 3주일이 되면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시작한다. 이때 알 속의 병아리가 바깥으로 나오려고 소리를 내면서 여기고 약한 부리로 알껍질을 다쳐 안에서 껍질을 쪼면 어미는 감(感)을 잡아 바깥쪽에서 약센 부리로 껍질을 쪼는다.
 이때 병아리와 어미의 호흡이 일치(一致)해야 한다.
 그 이유는 만약 어미가 너무 늦게 쪼면 병아리는 알 속에서 질식사하고, 너무 일찍 쪼면 될 뻔 병아리가 생명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알 속의 병아리와 밖의 어미가 호흡을 맞춰 동시에 쪼아야 한다.
 이때 알 속의 병아리가 밖으로 나오고 싶다고 소리를 내는 것을 줄이라 하고, 밖에서 이 소리를 듣고 병아리를 도와 열심히 껍질을 깨는 소

리를 탁(啄)이라 한다.
 병아리가 알 속에서 내는 신호를 육감으로 느껴서 동시에 쪼아대는 어미의 힘이 위대하다.
 불교에서 유래된 이 성어는 스승이 제자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것을 어미닭이 밖에서 껍질을 쪼아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에 비유한 것이다.
 지금은 불교에만 국한하지 않고 서로 학문을 정진하도록 돕는 사제지간을 뜻할 때도 쓴다.
 어느 학생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귀엽지 않을까?
 "선생님, 제가 줄줄하면, 탁탁(啐啄)해 주실 거죠?"

☆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

절기와 역법

◆ 음력(陰曆)과 양력(陽曆)

인류가 역법(曆法)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달력은 태양과 지구, 달의 변동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관측의 대상에 따라 태음력(太陰曆)과 태양력(太陽曆), 태음태양력(太陰太陽曆)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태음력(太陰曆)

첫 번째 태음력(太陰曆)은 달의 운행만을 기준으로 삼아 달이 평균 29.53059일을 주기(週期)로 차고지는 것을 1달로 정해서 만든 달력이다.
 순태음력(純太陰曆)으로도 불리는데, 현재 일상에서 사용되는 우리의 음력(陰曆)과는 다른 역법이다.
 윤달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계절과 달력이 점차 달라지는 결점이 있지만 현재에도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사용되고 있다.

◆ 태양력(太陽曆)

두 번째 태양력(太陽曆)은 현재의 양력(陽曆)으로 태양의 공전주기인 365.2422일을 12달로

나누어 만든 것입니다. 로마시대를 기원으로 보는데, 율리우스력에서 그레고리력으로 발전했다.
 율리우스력은 로마의 대황제 율리우스 시저가 그리스에서 사용하던 것을 수정해서 사용했는데, 1년을 365일로 정하고 4년의 배수가 되는 서기(西紀) 연도에 윤년(閏年)을 두었다.
 하지만 1년을 365.25일로 정하다 보니 실제의 1년과는 0.0078일의 오차가 생기게 된다.
 그후 1582년 로마 황제 그레고리 13세가 3월 11일에 태양이 춘분점(春分點)을 통과하는 것을 알고 율리우스력을 개선하여 현재의 양력(陽曆)을 만들어 400년 사이에 97회의 윤년을 넣었다.

◆ 태음태양력(太陰太陽曆)

마지막으로 태음태양력(太陰太陽曆)은 우리의 일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음력(陰曆)이다.
 태음력(太陰曆)의 오류를 보완해서 윤달의 개념을 삽입해 달력과 계절의 불일치를 다소 해결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태음태양력은 태양 공전주기 365.2422일과 달의 공전주기 354일의 차이 11.25일을 보완하기 위해 19년간 7번의 윤달을 넣어 대략 3년 정도의 간격으로 13개월의 1년을

만들어 계절과 역법을 일치시킨 것이다.
 이와 같이 음력(태음태양력)은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삶 자체로 지속되어 왔다.
 여기에 우리 민족은 농경사회의 전통을 지녔기에 태음태양력이 농사 시기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 24절기(節氣)라는 지표를 가미하게 된 것이다.

한통이의 어린이 한자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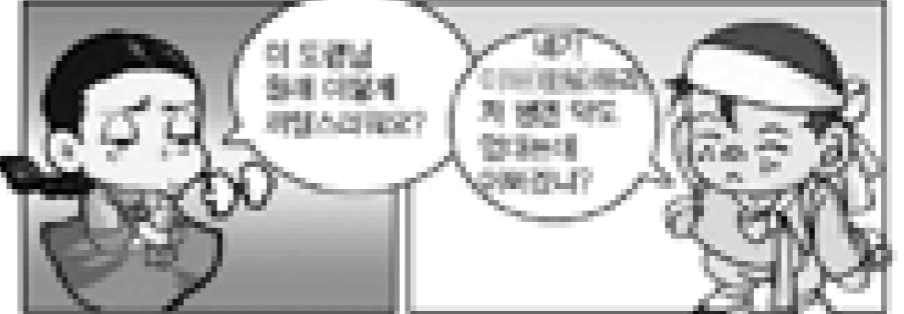
◆ 다음 빈 칸에 알맞은 한자나 훈음을 쓰시오.

娘		狀	
	아들 자		모양 태
	解		敏
다스릴 리		사이 간	

한자 만화 코너/한통이의 어린이 한자교실(스물두번째 마당)

러사넬은 바닷길을

한자통



◆한자 시험 대비 빈출 문제(4급)정답◆

- 1. (1) 검소 (2) 처단 (3) 폐업 (4) 사도 (5) 우편 (6) 방범 (7) 침소 (8) 점유 (9) 향교 (10) 특허 (11) 도처 (12) 선실 (13) 남덕 (14) 강설 (15) 강도 (16) 연수 (17) 수축 (18) 근로 (19) 도당 (20) 연립
- 2. (1) 말 두 (2) 사사로운 사 (3) 겨울 동 (4) 막을 한 (5) 행복할 함 (6) 말쑥 변 (7) 벗을 탈 (8) 석을 혼 (9) 줄기 맥 (10) 연구할 구 (11) 계절 계 (12) 책 편 (13) 곤란 곤 (14) 들일 남 (15) 가족 혁 (16) 열매 실 (17) 섞일 잡 (18) 소 우 (19) 돌 정 (20) 곤을 견
- 3. (1) 管理 (2) 冷待 (3) 災害 (4) 開發 (5) 宿患
- 4. (1) 村 (2) 區 (3) 墟 (4) 患 (5) 活
- 5. (1) 安 (2) 肅 (3) 高
- 6. (1) ② 思 (2) ① 健 (3) ③ 冷
- 7. (1) 耳 (2) 友 (3) 決
- 8. (1) 飛行 (2) 入手 (3) 順理
- 9. (1) 고향 (2) 이름 (3) 학교
- 10. (1) 伝 (2) 輕 (3) 國

